



월간 서신원

제 11호(vol.1-11)

발행인: 권호덕총장
편집인: 장석조교수
발행소: 서울성경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칼럼>

교회의 사도성과 교회의 뿌리



권호덕 총장

우리의 관심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 초대교회시대처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풍성케 하여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여러 교파로 구성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마치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모습은 현대 한국교회가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표준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바로 그 표준이 사도성(使徒性)과 관계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 사도성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사도성(使徒性)을 외적인 정통성으로 가르치는데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자리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사도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사도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혁교회가 말하는 사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지상의 모든 교회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하나의 근원 즉 사도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따른다는 것이 사도성이라는 말이다. 정경(正經)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사도성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인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고 교회의 삶의 근거이다. 교단이나 교파가 다를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의 근원이 동일한 경우 성도의 교통이 가능한 것이다. 지상의 모든 교파나 교단들이 이런 사도성을 지닐 때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며(통일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보편성),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거룩성).

동시에 교회의 사도성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가 한 뿌리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사도교회와 역사적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개신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도적 계승과 관계가 없음을 말하고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러면 중간에 새로이 생겨난 교회들, 이를테면 종교개혁운동과 더불어 생겨난 개신교 교회들은 사도적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 개신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운동은 교회의 사도성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교회의 사도성에 따르면 지상의 모든 시대 교파나 교단

의 가르침이 다양하나 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은 공통적으로 함께 흘러내리는 것이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런 시각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생명이 흘러내리는지를 반성을 해야 하며 교회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들어온 다른 교훈으로 인해 순식간에 변질되어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현대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삼으면서도 실제로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지도 않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판 이신론(理神論)이나 실천적 무신론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지금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선장도 없고 돛대를 잃어버리고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보인다.

교회의 영적인 전투는 사도성(使徒性)을 보여준다: 사도성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세를 요구한다. 미국 칼빈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던 스파이크만은 교회의 이 속성을 영적 전투와 연관시켜 설명했다. “사도성은 참된 기독교 전통의 신실한 보존을 보증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그 기원으로부터의 연계성(連繫性)을 보여주며, 이단과 반대 방향을 따라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道)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싸움을 제시한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영지주의 이단들에는 이런 역사성이 간과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등장한 유다복음서에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관심은 현상계와 이데아 세계와 같은 초자연적인 실재 사이의 관계에 쏠려 있지 역사에는 관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사도성이다: 그 다음으로 교회의 사도성이란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사도적이다”라는 루터의 표현대로 무슨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는 그런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미래의 시점에도 관심을 가져야지만 항상 그 근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된 근원을 벗어난 교회는 “다른 복음”에 근거한 교회이며 이단으로 전락한다. 참된 교회가 역사적인 상호관계 또는 역사의식(歷史意識)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도성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교회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사도성은 역사 교육을 요구한다. 기독교 역사나 한국교회 역사에 대한 교육을 간과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교육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축

학교법인 순장학원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이임: 제 6대 이사장
이석제 장로

취임: 제 7대 이사장
강 철 목사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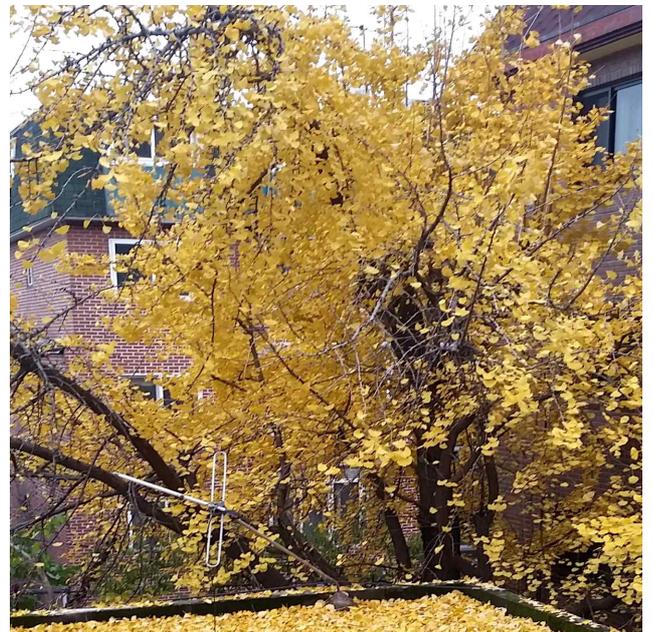
장소: 대천교회 예배당



제 6대 이사장 이석제 장로



제 7대 이사장 강 철 목사



<교계소식>

[서울신대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평화 전제는 日의 침략사 사죄·보상”



유석성 서울신대 총장이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대에서 열린 ‘서울신대-하이델베르크대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부천=전호광 인턴기자

유석성 서울신대 총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대에서 열린 ‘서울신대-하이델베르크대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는 과거 침략에 대한 일본의 시인 반성 사죄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초대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후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안 의사는 이 책에서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했다. 동양평화를 위해 ‘한·중·일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고 공동 군대, 공동 은행을 두고 공동 화폐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유 총장은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시아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 의사가 이토를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와 ‘저항권’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사는 당시 일본 법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라고 묻자 “평화로운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죄악이다. 나는 이 죄악을 제거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기조 강연자로 나선 미하엘 벨커 명예교수는 세계적인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

강의했다. 벨커 명예교수는 칸트의 저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1795년)를 토대로 칸트의 ‘평화론’을 설명했다.

칸트는 이 책에서 폭력과 무기가 아니라 법과 정치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칸트는 “평화와 휴전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며 “평화라고 불리는 단순한 휴전 상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국가의 주권파괴를 금지하고 상비군을 점차 철폐하며 다른 나라를 간섭하기 위한 폭력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벨커 명예교수는 “칸트의 평화론은 평화를 위한 도덕·정치·법률적, 심지어 경제적 조건까지 다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용(고려대 명예교수) 전 주일대사는 ‘동아시아 평화와 한·중·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일본은 너무나 보수적인 나라라는 점, 한국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면 이를 이해할 만한 국민이 적지 않은 나라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양국 간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약의 다윗 전통의 내부적 발전 논리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강연한 만프레드 외밍 하이델베르크대 교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 음악 노래 공동체에 유용한 도덕에만 관심이 있었던 다윗은 평화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부천=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많은 사람들은 이 국정화를 가리켜 획일화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역사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좌파 역사학자들이 더 획일적임을 지적한다. 자기들은 제각기 다양한 역사책을 만들었으나 좌파 역사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고 오히려 획일적이라는 지적이다.(편집실)





제사장 직무수행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본장은 위임식을 마친 바로 다음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기록이다. 모세의 지시로 제물을 준비하는데,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물을, 그 후에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한다. 아론과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 아론의 축복과 불로써 임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다.

2. 모세의 제물 준비(1절)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아론과 그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장로들을 불러 제물을 준비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들과 그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면, 회막 앞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3.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누구인가?(1절)

성경의 장로(elder)는 셋으로 구별한다. 첫째, 정치지도자이다(출 3:16; 4:29; 19:7; 24:1; 수 23:2; 삿 21:16; 룻 4:2; 왕상 21:8; 잠 31:23). 둘째, 유대인의 장로이다(마 15:2; 21:23; 26:57; 막 15:1; 행 22:5). 셋째, 교회의 장로이다(행 11:30; 15:2; 딤편 5:17; 딤후 1:5; 약 5:14; 벧전 5:1).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들을 가리킨다.

4. “여호와 앞”이란 무슨 뜻인가?(2, 5, 24절)

이것은 회막 앞을 가리킨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 “야웨”(YHWH)인데,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직접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여 “아도나이” 즉 “나의 주(主)”라고 읽는다. “엘로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야웨”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야웨의 이름을 복합명칭으로 사용한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서 준비하심(창 22:14),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출 15:26), 여호와 닛시: 주님은 나의 깃발(출 17:15), 여호와 살롬: 평강을 주시는 주님(삿 6:24),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서 거기 계심(겔 48:35), 여호와 엘론: 가장 높으신 주님(시 7:17; 47:2; 97:9), 여호와 로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 23:1) 등이 있다.

5. 대제사장 아론이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8-14절)

아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다(히 5:1-3). 먼저 그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타인을 위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신약시대의 사역자들도 무엇보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죄 없으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히 4:14-16).

6. 아론 자신을 위하여 드린 제사의 제물

첫째, 속죄제를 위한 흠 없는 송아지이다(2, 8-11절). 이것은 대제사장이 가장 값진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다. 혹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를 회상하고 회개하도록 하려는 의도라 한다(출 32장). 둘째, 번제를 위한 흠 없는 수양이다(2, 12-14절). 아론의 번제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헌신의 의미다. 그럼 관점에서 예배의 필수요소는 회개와 헌신이다.

7. 백성들을 위한 제사(15-22절)

첫째, 염소로 속죄제를 드렸다(15절). 둘째, 흠없는 송아지, 어린양으로 번제를 드렸다(3, 16절). 셋째, 소제를 드렸다. 이것은 아침번제(출 29:39)에 덧붙여 불살라 드렸다(4, 17절). 넷째, 수소와 수양으로 화목제를 드렸다(4, 18-22절). 먼저 속죄제를 드린 까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다(사 59:1-3). 그 후에 번제로 복종과 헌신을 다짐했다. 마지막 화목제를 드린 것은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복에 따른 친교를 의미한다.

8. 제사의 마지막 순서(22절)

아론은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제사를 마쳤다. 이것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함이다. 이처럼 백성을 축복하는 일은 제사장의 주요임무다(민 6:22-27). 주님도 승천하면서 축복하셨다(눅 24:50). 그런 관점에서 신약의 예배를 축도로 마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후 13:13).

9.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남(23절)

영광(히, 카보드)이란 하나님의 임재 때에 나타나는 초자연적 현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출 33:20).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도 실상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이다(출 33:23).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4:24), “하나님의 등”도 은유적 표현이고, 그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보여준다. 아론과 그 아들들, 온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증한다(시 27:4).

10.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름(24절).

이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다. “불살랐다”는 것은 “삼켰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 대신에 제물을 삼켰다는 의미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것과 같다. 여기에 불이 등장하는 것은 이방 신화처럼 제단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제사장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11.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감동한 백성들의 모습(24절)

첫째, 백성들은 소리쳤다. 이것은 큰 기쁨의 표시였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민족이란 자부심과 긍지의 표현이다. 둘째, 백성들은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인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렸다.

12. 레위기 1-9장의 핵심내용

지금까지 레위기 1-9장에서 다룬 것은 “제사(sacrifice)”와 “제사장(priest)”에 관한 규례이다. 이 둘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죄인에게는 제사가 필요하고, 성도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란 이중적 신분을 다 지니고 있다. 먼저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이다(히 9:14, 28; 10:19-25).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도,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롬 8:1-2, 34).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달포쯤 지나, 그분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은 모 출판사

월간지 텔레마케팅 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세 배이고, 이제는 한겨울에도 찬물에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 집사님은 그분의 가정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분의 남편은 대기업 식당의 요리사였습니다. 슬하엔 두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는 네 살 때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은 ‘온유’였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남편은 남은 아들을 부드럽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자주 다투며, 맞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가정을 섬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처음 만난 후부터 줄곧, 김치를 보내주었습니다. 고향인 여수에서 생것(생선, 조개 등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이 올라오면, 꼼꼼히 손질하여 이 집사님에게 건넸습니다.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스승의 날, 생일,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이 집사님을 챙겼습니다.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저를 챙기지 말고 담임목사님을 챙기세요. 목사님은 교회의 영적 아버지잖아요.” 가끔, 일부러, 이 집사님은 그분에게 김치를 주문하곤 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분들을, 자신이 섬겨야 할 분들을 섬겼습니다. 그 김치를 맛본 많은 분들은 맛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겨울, 이 집사님은 또 다시 그분에게 김치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권사님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온유 때문에 아팠던 강 집사님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그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네요. 이제는 담임목사님을 챙기세요. 섬기세요.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은 묵은 세월을 전제하는 성도 간의 신뢰와 신앙 안에서 익어 맛을 냅니다. 그리고 김치처럼 풍요로운 맛과 영양을 지니게 됩니다. 향아리와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교회 안에서 서로 섞여 말씀과 기도로 버무려진 김치... 그런 사연이 그림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침, 생각합니다... 우리교회 안에 소외된 성도는 없는지... 너무 아파 악, 하는 비명조차 낼 수 없이 힘든 성도는 없는지... 우리가, 아니, 제가, 누굴 챙겨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신앙시인의 수필>



이경아 박사(신원예닮교회)

김치 맛 사연

오래 전 어떤 교회에서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의 시합이 한창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도들의 응원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 때, 이 집사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분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은 다른 성도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가끔, 조용히, 박수만 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집사님 눈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탁구대회가 한창인 그 교육관 1층에서 이 집사님과 그분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일에는 코엑스 식당가에서 설거지 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릇 한 개를 닦을 때마다 “이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릇을 닦는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이 집사님은 그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은 거칠고 부어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 대체 왜 이 자리에서 이분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집사님은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



사도행전 6:8-9:31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석조교수(신약학, Ph.D.)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마치며(1:3,6; 28:23, 31) 그 주제를 명시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명시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1단원\(1:1-6:7\)](#)에서 더 이상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능력 행함(2:22), 고난과 죽음에 내준 바 됨(2:23), 부활(2:24-32), 승천과 성령 부어주심(2:33-35) 등 주 예수(2:36)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 제1단원은 히브리파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이 기독교적 복음의 말씀이 외적 박해와 내적 부패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면서 중단없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인 요약구절은 '말씀의 성장'과 '수의 번성'으로 마치며, 이런 패턴은 사도행전 전체의 뼈대로 기능한다(6:7; 12:24; 19:2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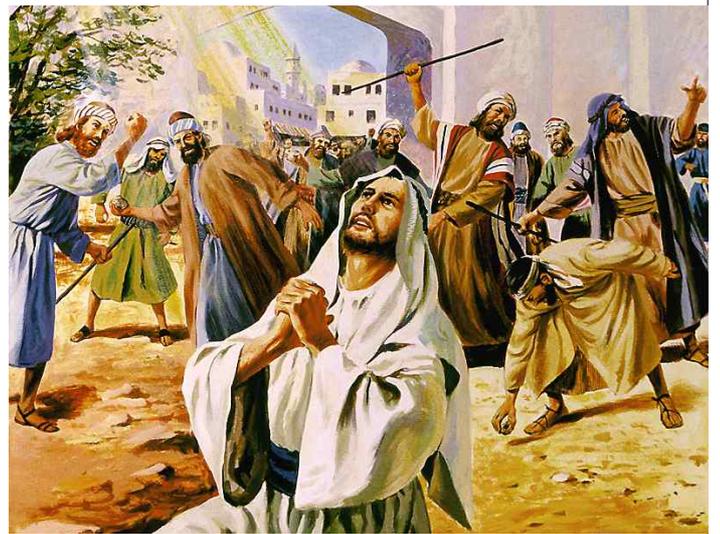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6:8-9:31은 제2단원에 속한다. [제2단원\(6:8-12:24\)](#)은 '하나님의 나라' (1:3, 6)로 도입되는 제1단원(1:1-6:7)과 달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6:8-7:1). 제1단원에서 기사와 표적은 요엘서에 나타난 약속(2:19),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주 예수의 사역(2:22), 주 예수의 사역을 전승받은 히브리파 사도들의 사역을 특징짓는다(2:43; 4:30; 5:12; 참고 9:32; 14:3; 15:12). 제2단원은 헬라파 스테반의 기사와 표적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 관한 가르침(7:2-53)으로 이어지는 배경과 동기로 사용되고 마침내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늘 성전의 하나님과 주 예수에 대한 고백적 선포로 이어간다(7:54-60).

헬라파 지도자 스테반을 통한 복음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되었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8:1).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히브리파 사도들과 헬라파 지도자가 전한 '그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였다(8:4). 히브리파 사도들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얻었다(4:1-4)는 긍정적 효과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전개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제2단원(6:8-12:24)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8:12)는 헬라파 지도자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사역에서 사용된다. 빌립은 말씀의 가르침과 표적의

행함을 균형있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8:5-13). 특히 주 기독교론과 그에 대한 믿음과 세례의 반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특징들이다(8:16, 25). 누가는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주 예수의 지상 명령(1:8)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주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모습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보여주려 한다(8:1; 9:31).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주 기독교론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그 전승의 복음을 전수하고 그 하나의 복음에 근거한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을 인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사도행전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주 기독교론은 바울의 회심·소명에서 나타난다. 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복음의 장애물에서 부활과 승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땅 끝까지" 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도적 소명도 받게 된다. 또한 회심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핍박의 주제는 사도행전의 구조에서 보았듯이 반복되는 주제다(8:1나-8:3; 9:1, 13, 21; 22:4,5, 19; 26:9-11). 누가는 박해의 선봉장까지도 회심시켜 복음의 말씀이 핍박의 고난을 뚫고 중단 없는 전진의 능력을 발휘함을 보여준다. 또한 의도적인 공식적 핍박의 주체인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눅1:76; 3:10; 5:1, 32; 행2:38)은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누가신학의 기본 주제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헬라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주 예수의 구속사역을 복음을 전파한 히브리파 사도들의 복음을 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냉랭하고 권위를 상실한 영국교회에 부흥을 일으킨 로이드존스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설교할 것을 촉구하고 그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감성과 불굴의 개혁의지로 성공적인 효과를 이뤄냈다. 오늘날 조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게 해준다.



삼위일체론 강의(2)

이동영 교수(Dr. theol. 조직신학)

서방교회 안에서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무관심

삼위일체교리가 기독교의 근본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서방교회의 신학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종종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삼위일체교리는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구원경험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리였습니다. 이 교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체험과 그것을 통한 그들의 구원 경험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러기에 이 교리는 그들의 구원경험의 신학적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삼위일체교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경험의 구체적인 신학적 표현으로 온당하게 취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적 신비를 존재론적으로 사색하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교리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교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상이신 하나님에 관한 실로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사변적으로 사색하는 이해불가의 교리로 폄하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삼위일체교리의 이러한 폄하는 4세기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사이의 논쟁으로부터 발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논쟁에서 아리우스는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기에 성자는 성부와 ‘유사본질’(ὁμοιούσιος)을 소유할 뿐 ‘동일본질’(ὁμοούσιος)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리우스(Arius)의 주장을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본질이 아니라 유사본질에 불과하다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의 피조물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자는 우리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리우스의 유사본질사상을 받아들일 경우, 예수의 죽음은 잘 봐주어야 한 의로운 선지자의 죽음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론적인 이유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의 동일본질을 끝까지 주장했던 것이고, 공교회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Konzil von Nicaea)에서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교부들은 성자에 관하여 성부와 동일한 본질, 즉 동일한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니케아 공의회의 결의는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항하여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과 관련하여

불가결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니케아 공의회의 결의는 성부와 성자가 상호간에 동일본질이라면 성부와 성자 이 양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파생시켰고, 이 질문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경험에 근거하고 있었던 기도와 송영(찬양)의 교리로서의 삼위일체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상호간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규정하는 매우 복잡하고, 고답적이며, 관념적인 사변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론적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복잡하게 사변적으로 토론되면서부터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논의는 초대교회의 구원경험이라는 이 교리 생성의 구체적인 신학의 자리(locus theologicus)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세기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사이의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니케아 공의회(AD 325)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AD 381)를 거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와 중세신학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교리의 논쟁에 대한 일련의 노정을 살펴보면, 이 교리가 초대교회의 구원의 경험이라는 구체적인 삶(태생)의 자리(Sitz im Leben)를 이탈하여, 매우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쟁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 이래로 신학자들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며, 동시에 상호간에 서로 구분되는지에 대하여 복잡한 사변을 앞세워 치열하게 논쟁했으며, 이러한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삼위일체교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 및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사변으로 폄하하는 분위기를 형성시켰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와 프리드리히 다니엘 에른스트 슈라이어르마허(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는 삼위일체교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및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관념(사변)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중엽까지

20세기 중엽까지도 삼위일체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및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변적인 교리라는 견해가 서방교회 안에서 대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0세기 로마교회의 신학자 칼 라너(Karl Rahner)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풍자적으로 말하기를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2000년 교회사의 모든 문헌들이 몽땅 불타 없어진다고 할 지라도 신자들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그의 대부분은 실재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론자들이 아니라 일신론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Karl Rahner, Der dreifache Gott als transzendenter Urgrund der Heilsgeschichte, in: *Mysterium salutis*, II, 319).

삼위일체교리의 르네상스와 한국교회 안에서 삼위일체교리의 무관심

독일의 신학자 엘빈 쉐델(Erwin Schaedel)은 오늘날의 신학 안에 삼위일체신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했음을 천명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일군의 신학자들(위르겐 몰트만(J. Moltmann),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 Pannenberg), 에버하르트 윙겔(E. Juengel), 발터 카스퍼(Walter Kasper), 기스페르트 그레샤케(Gisbert Greshake), 존 지지올라스(John Zizioulas), 두미트루 스타닐로에(Dumitru Staniloae))에 의해서 삼위일체신학의 르네상스기를 형성시켰던 것입니다.

1980년대 이래로 오늘날의 신학에서 삼위일체신학의 논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서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냉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위일체교리와 관련하여 한국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삼위일체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및 삶과는 무관한 하나의 장식교리(Dekolationsdogma)로서 단지 예배 말미에서 목회자의 축도 속에서 그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삼위일체교리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는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및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변적이고 불가해하며 무의미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교리 앞에서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의 자세보다는 맹목적인 신앙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신약학자 이상근은 삼위일체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삼위일체교리는 신비중의 신비에 속한다. 우리는 이 교리가 성경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불가지론의 영역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의 길을 경건한 신앙과 더불어 수용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아니다(이상근, 요한복음주석, 128).

여기에서 이상근은 삼위일체교리의 이해불가능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교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교리로 이해하는 관점은 민중신학자 안병무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나는 삼위일체교리와 같은 그런 교리는 무시한다. 이 교리는 성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편리한 수단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155).

여기에서 안병무는 삼위일체교리의 무의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이해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이상근과 그것에 대한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안병무의 견해를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단지 그들 개인의 견해라기보다 한국교회 안에 널리 유포되

어 있는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그들이 대변한 것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삼위일체가 등장함: 성부는 음성으로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중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교리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만을 취급하는 사변적이고 이해불가능하며 무의미한 교리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예배, 기도, 실천을 위한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한번 믿고 지나쳐 버려야만 하는 무관심 내지는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Dong-Young, Lee, Die Trinitätslehre und die trinitarische Praxis, 7). 그러다보니 삼위일체교리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를 해명하고 해설하는 설교를 한국교회 안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삼위일체교리를 배우는 것과 예배와 신앙과 삶을 통하여 이 교리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약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Dong-Young, Lee, 같은 논문, 6-7).





“시온의 미래”(2-4장)

임용섭 교수(구약학, Ph.D.)

개요

이사야 1장은 언약 백성의 타락에 대해 질책하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 회복하실 것을 말씀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시온으로 지칭하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그 심판과 회복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2~4장 역시 시온의 운명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다. 2:1에서 다른 표제가 나오면서 새 단원이 시작하고, 선지자는 세상의 중심으로 굳게 설 영광스러운 시온의 미래를 제시한다(2:2~5). 그리고 이 단원의 마지막에서(4:2~6) 다시 정결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회복될 시온의 미래에 대한 묘사로 마무리하여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 그 사이에 당대 백성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하는데(2:6~4:1), 이 부분은 다시 종교적 심판(2:6~22)과 사회적 심판(3:1~4:1)으로 구분된다. 이 단원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2:1)

1:1의 표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의 표제는 다음에 오는 말씀을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사야의 예언으로 제시한다. 1:1은 이사야서의 첫머리에 놓여 있어 전체의 표제로 기능하는 반면, 2:1은 보다 적은 범위 즉 2:2~5, 2~4장, 혹은 2~5장을 이끄는 표제로 보인다.

높아질 시온(2:2~5)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이가 선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지형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온산은 이 땅에서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곳이다(참고 시 48:2).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권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높이 세워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나라와 민족이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로 몰려드는 것이다. 여러 민족과 나라가 거기에 모이는 동기가 3절에 설명되어 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고자 그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의 전으로 모여든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멸시한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사 5:24). 4절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를 따른 결과를 설명한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 순복하여 그들은 완전한 평화를 얻고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평화에 대한 예언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의 침입과 앗수르 제국의 침입 전쟁을 겪은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 또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망국의 아픔을 겪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방 민족들의 신실한 태도와 그에 따른 복을 누리는데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전한 자극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장차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것인데 하물며 언약 백성이 그보다 더 신실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표제(2:1)

A 높아질 시온(2:2~5)

B 세상 영광과 우상의 붕괴(2:6~22)

- (1) 버림받은 야곱 족속(6~9)
- (2) 높임 받으실 여호와(10~17)
- (3) 우상과 숭배자의 파멸(18~22)

B' 불의한 사회 체제의 붕괴(3:1~4:1)

- (1) 자원과 지도자 제거(3:1~7)
- (2) 행위에 따른 심판(3:8~15)
- (3) 시온의 딸들의 굴욕(3:16~4:1)

A' 회복될 시온(4:2~6)

백성에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권면한다.

세상 영광과 우상의 붕괴(2:6~22)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주제는 2:6~22에서도 계속된다(2:11, 17). 다만 여기에서 선지자의 예언은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로 전환된다. 특히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 6~9절에서 선지자는 왜 그 백성이 심판을 받는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이방인과 교류하며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 이들은 앞 단원에서 묘사된 여호와의 전을 찾아오는 신실한 이방인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10~17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게 되실 날이 이를 것을 선언한다. 이 날에 인간의 교만과 함께 세상의 모든 영광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그 섬기던 우상들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알고 그것들을 내버릴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위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한다(2:22).

불의한 사회 체제의 붕괴(3:1~4:1)

인간의 교만과 영광의 낮아짐 그리고 그것이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제가 3:1~4:1에서도 이어진다. 다만 여기에서는 초점이 우상에 관한 것에서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회 문제로 넘어간다. 3:1~7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사회 체제를 파괴하실 것을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양식과 물(3:1)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제거하실 것이다(3:2~3). 이것들은 우상과 같이 그 백성이 의지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 사회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3:8~15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다(8~11절). 이 사회의 불의함은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의 길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그 지도자들의 죄를 벌하신다(12~15절). 3:16~21은 심판의 결과로 그 백성이 당할 수치와 굴욕을 신랄한 풍자로 묘사한다. 온갖 장식으로 치장하고 뽐내던 여인이 추하게 몰락하듯이 시온은 황폐해지고 그 백성은 궁핍하게 될 것이다.



by luigi alesi (flickr)

회복될 시온(4:2~6)

앞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심판은 처절하지만 그것은 시온을 정화하시는 과정이다(2~4절). ‘여호와와 짝’은 다른 선지서와 같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참고. 렘 23:5, 33:15; 스 3:8, 6:12). 왜냐하면 이사야 자신도 그와 같은 표현으로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사 11:1, 10). 그렇다면 이것은 불의한 지도자를 제거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그 사회를 회복하실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곧 신실한 남은 자에게 주어질 은혜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5~6절). 이것은 마치 옛적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

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한 종말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에 반영되어 있다(계 21:22~27).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 와 함께 종말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학회소식

1.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 66차 정기논문발표회와 제 5차 국제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우리학교는 회원학교이기 때문에 6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일시: 2015 10 30-31

-장소: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주제: 복음주의와 사회정의

2. 한국개혁신학회

제 49차 학술심포지엄이 2015년 10월 10일

서울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와

공동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권호덕 총장은 ‘칼빈의 유럽대륙의 후예들의 성육신론’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고 이동영교수는 좌장을 맡았다.

3. 한복조직신학회

제 31차 정기학술논문 발표회가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개최했다.

4. 한국장로교신학회

제 26회 정기논문발표회가 2015년 11월 11

잠실중앙교회에서 개최된다.

학교소식

1. 학교법인 순장학원 이사장 이취임식이 2015년 11월 17일 11시 대천교회당에서 열렸다.

2. 다음 학기(2016년)부터 기독교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담당교수를 선발하는 일과 홍보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3. 타교단 출신 학생들 가운데 본교를 졸업하고 순장교단에 가입할 수 없어서 타교단에 가입해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듯하여 총회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듯이 보인다.

4. 교수들의 논문집인 ‘성경신학저널’ 이 출간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재성 교수(신약학, Ph.D.)

(요한복음1:29-42)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그 분을 소개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

그리고 이어 다음 날도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는 또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1:35).”

여기서 ‘보라’라는 헬라어는 ‘ιδε’인데 무언가를 보았을 때의 놀람, 흥분, 그리고 기대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스승인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 같이 ‘어린양’으로 인식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양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는 누가복음 2장 41절이하의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 예수가 부모님과 함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여기서 예수의 유일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 부모를 잃었다가 삼일 만에 찾는 사건이 발생한다(삼일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예수의 부모들은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는 급히 귀가 하던 중, 예수가 그들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급히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삼일 만에 랍비들 사이에 앉아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예수를 만나게 된다. 부모들은 예수를 꾸짖고는 데리고 급히 귀가 길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는 왜 많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에 하필이면 별로 유쾌하거나, 기분 좋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된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기가 유월절이다. 예수는 부모와 헤어져 삼 일간 성전에 머물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곳에 앉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비참함, 짐승들의 울부짖음, 피비린내, 그리고 섬뜩함...이것들을 통해 예수는 죄의 결과의 비참함과 끔찍함, 그리고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어가는 오래된 약속을 생각했을 것이다. 누가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묻고 있는 것이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있는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 아이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때가 차매 그의 공생애를 위해 세례를 받으러 나아왔을 때, 분명한 어조로 외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개념은 ‘유월절 어린양’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오셨음’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월절 어린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모든 양이 유월절 양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예언, 방문, 동정녀 탄생, 영접 등.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유월절에 성전에 앉아 성전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끔찍한 피의 제사를 바라보고 있는 저 아이는 누구인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고 부모에게 당돌하게 말하고 있는 저 아이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사역은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구약에서 오랜 시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오랜 약속을 성취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그래야 흠 없는 유월절 어린양의 조건을 갖추실 수 있기에! 결국 누가가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들려준 이유는 바로 유월절 어린양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알게 해 준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을 수 있는 조건을 손수 구비하시기 위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신 예수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그렇게도 울었던 소쩍새의 심정으로,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도 울부짖던 천둥의 심정으로,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도 온 몸을 불살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그 영원을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어린양으로 오셔서 피 흘림과 구속을 통해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셨던 그 예수님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시고, 그들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님을 볼 때, '보라!'고 감격스럽게 외칠 수 있었고, 기꺼이 자신의 제자들을 그 거룩한 사역을 위해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자신의 작지만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풍성함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처럼 말이다.

<선교신학>



**영적 전쟁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평가(3)**

배춘섭 교수(선교학, Ph.D.)

2.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이란 무엇인가?

제3의 물결에 관한 정확한 기원을 규명하는 것은 난해하다. 존 워버가 1982년 풀러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 “MC501: 표적, 이적과 교회성장”이라는 교과과정은 주로 제3의 물결운동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 그러나 이 과정이 제3의 물결의 시작이었는지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피터 와그너²⁾와 찰스 크래프트³⁾가 존 워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터 와그너는 1983년에 공식적으로 ‘제3의 물결’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⁴⁾ 그 후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는 복음주의 교회의 다양한 초자연적 경험을 강조하는 사건들을 언급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곤 했다. 특별히 신앙인의 삶 속에서 말이다. 또한 이 용어는 20세기에 있었던 두 물결의 영적인 회복운동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영적인 운동으로서 20세기의 첫째 물결은 1900년대에 발생한 오순절 운동이었고, 둘째 물결은 1960년대에 발생한 은사주의 운동이었다. 따라서 제3의 물결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는 바는 최근

일어나는 영적 운동들이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두 물결의 영적 운동들이 진화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제3의 물결은 성령과 오늘날의 영적 행위나 계시 등을 강조하는 오순절과 은사운동처럼 또 다른 유형의 성령운동의 표현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⁵⁾

제3의 물결운동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이념들에 관해 가장 논의가 격하게 충돌되는 신학적 논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악령에 지배거나 귀신들릴 수 있다. 둘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식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다. 셋째, 소위 “지역 귀신”(territorial spirits)은 지역, 도시, 국가와 같은 특별한 영역을 관장하고 있다. 넷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통제에 도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물체나 장소는 귀신들림을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고 악한 영향력을 투과할 수 있다 등이다.⁶⁾

이런 신학적 논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3의 물결 지도자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에 관한 일관된 견해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관한 그들의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제3의 물결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 하나는 역시 “능력대결”로 볼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능력대결에는 주로 역동성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는데 열등적 차원(lower level)과 우월적 차원(higher level)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전자를 가리켜 개인의 구원사역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기본적 차원에서 대결해야 하기 때문에 열등적 차원이라 명칭하고, 후자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 높은 서열의 악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인 능력대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월적 차원으로 호칭하였다.⁷⁾

하지만 제3의 물결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능력대결의 견해는 신학적인 중대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간략히 이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첫째,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이원론적 세계

1) Wonsuk. Ma, “A First Waver Looks at the Third Wave: A Pentecostal Reflection on Charles Kraft’s Power Encounter Terminology,” *The Journal of the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19/2 (1997): 189.
 2) C. Peter Wagner, ed. “Introduction,” in *Signs and Wonders Today: The Stor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s Remarkable Course on Spiritual Power* (Altamonte Springs, FL: Creation House, 1987), 6-11.
 3) Charles H. Kraft, “Five Years Later,” in *Signs and Wonders Today: The Stor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s Remarkable Course on Spiritual Power*, ed. C. Peter Wagner, 2nd ed. (Altamonte Springs, FL: Creation House, 1987), 116-118.
 4) C. Peter Wagner, “A Third Wave? An Interview with C. Peter. Wagner,” *Pastoral Renewal* 8/1 (1983): 1-5.

5) Edward Rommen, ed. “Introduction,” in *Spiritual Power and Missions: Raising the Issue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5), 2-4.
 6) C. Peter Wagner, *Confronting the Powers*, 91-92.
 7) Charles H. Kraft, “Two Kingdoms in Conflict,” in *Behind Enemy Lines: An Advanced Guide to Spiritual Warfare*, ed. Charles H. Kraft, Tom White, Ed Murphy, et al. (Ann Arbor, MI: Servant Books, 1994), 17-29. 찰스 크래프트와 네일 앤더슨(Neil Anderson)은 주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저층단계의 능력단계에 관심을 갖지만, 피터 와그너와 존 도슨은 주로 ‘영적 도해도’와 ‘지역귀신’ 그리고 ‘땅 밟기’ 등의 고층단계로서의 전략적 능력대결의 연구에 치중하였다.

관의 위험성이다. 능력대결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집중한다. 이 경우 개혁신학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성경의 대 진리와 충돌하게 된다. 성경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전쟁을 묘사하지 않는다.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행동할 뿐이다. 만약 능력대결만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바른 신학적 견지에서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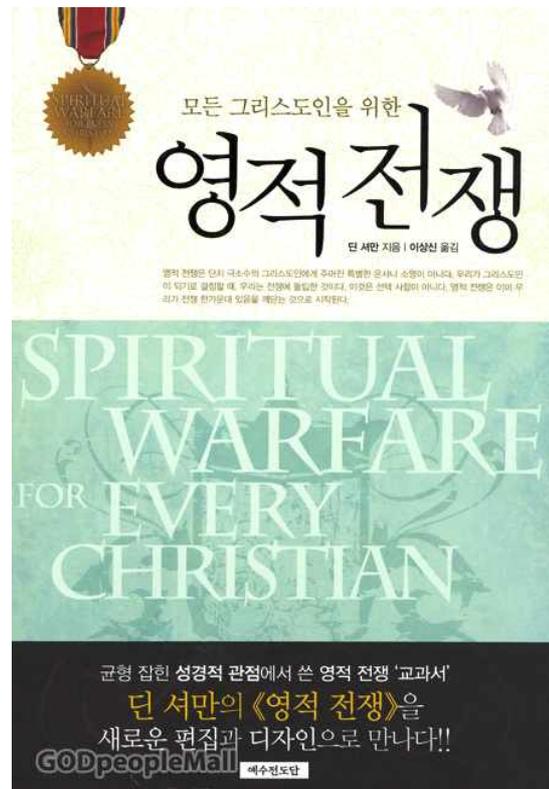
둘째, 가시적이고 초월적 능력만을 강조함으로써 왜곡된 구원론의 능력으로 인식될 위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영혼의 내적 변화로 인해 기인한다. 즉, 이것은 인간의 수행이나 공로로서 성취되기보다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발생하는 전적인 은혜인 것이다. 그러나 능력대결로서의 영적 전쟁 개념은 자칫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인간이 치러내는 전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이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초월적 기적과 표적을 통해 악한 세력을 물리친 가시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적의 배후에는 언약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역사를 보아야 한다. 따라서 능력 대결의 가장 큰 오류 중의 하나는 때에 따라 은사를 통해 가시적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실 수 있지만, 그러한 능력조차도 모두 인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교의 제국주의(Imperialism)와 식민주의(colonialism)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복음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죄인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능력대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겸손 고난 등 가시적 능력보다 더욱 큰 기독교의 고귀한 가치가 담겨있다.⁸⁾ 따라서 만약 이런 기독교의 가치가 무시된 채 대결구도의 능력만 강조된다면, 성경에서 강

조하는 모든 정적인(Static) 가치는 훼손되고 타종교처럼 종교적 이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은사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은사의 다양성을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다. 교회를 위한 대표적인 은사를 다루는 성경본문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 전서 12장이다. 전자는 주로 가시적인 은사를 언급하며, 후자는 불가시적 은사를 다룬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은사에 대해 총체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 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언급한다. 따라서 만일 능력대결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만 크게 부각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3의 물결에 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물결의 줄기가 오순절과 은사주의를 통합 및 계승하여 오늘날 논란이 되는 신사도 운동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제3의 물결의 선구자인 존 워버에 의해 발생한 빈야드 운동과 그의 영향력은 피터 와그너에게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와그너는 신사도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영적 운동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패러다임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⁹⁾

8) 이태용,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그 이론과 실제』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5), 195.

9) C. Peter Wagner, *The New Apostolic Churches*, 홍용표 역, 『신사도 교회들을 배우라』 (서울: 서로사랑, 2000), 22.

목회에서 교의학의 기능(1)

권호덕 총장

0.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교의학(敎義學)이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몇 년 전에 나이 든 목사님들이 박사과정에 입학전형에 임했다. 그때 필자가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목회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조직신학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마치 조직신학은 목회에 전혀 필요도 없는 듯이 대답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들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조직신학이 목회에서 발휘하는 기능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했던가, 둘 중에 하나였다. 이 두 가지는 그들을 불합격시키기에 충분한 대답이었다. 전자(前者)라면 그는 아직 박사 공부를 할 만큼 신학적인 지식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後者)라면 목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교의학 내지 조직신학은 목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교의학은 신학교 교과목에서 사라지고 쟁야 할 것이다. 교의학은 신학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깊다. 교부들의 신학과 어거스틴 그리고 중세 스콜라신학을 지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과 정통주의신학자들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성경신학, 실천신학 등등은 계몽 시대 이후에 등장하여 기독교 신학을 보다 깊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펼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교의학은 목회하는데 어떤 점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 첫째 교의학은 성경 해석학의 원리를 제공하여 성경해석자로 하여금, “역사적 비평적 해석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제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의학은 기독교 진리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오순절 성령강림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자기의 주님을 믿고,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일 회원들의 자격문제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f.)고 기록 되어있다.¹⁰⁾ 우리는 여기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 본 문장의 주동사이고 “세례를 주라”와 “가르치라”라는 말은 주동사를 구식하는 분사이다. 이 말은 “제자를 삼는 일”이 바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행위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며, 세례는 어떤 가르침을 전제한다. 예수의 제자를 삼으려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는 것이다. 즉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라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내포한다. 이런 지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드리면 세례를 주라는 말이다.

이것은 교회공동체는 불신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니어야 하고(인식), 그 인식의 결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며, 나아가 그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인식(erkennen), 인정(anerkennen), 고백(bekennen) 등 의식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교회가 함부로 무자격(無資格) 회원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로 교회가 부패한 예는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를 공인 사건에서 볼 수 있다(AD 325). 그가 기독교인들을 정치권의 고위직에 진출시키자, 비교기독교인들은 허위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수없이 들어왔다. 그 결과 교회는 빠르게 부패해진 것이다. 개혁교회가 교회의 표지(標識) 중에 “권징”을 포함시킨 이유는 바로 이유에서이다. 권징은 교인들의 삶도 살피지만 이단을 방지하고 복음을 바로 전하며 성례를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초신자들이 받을 교육을 위해 소위 “세례 고백서”를 만들어 내었다. 이 고백서는 짧지만 매우 함축적이며 암송하기 쉬워 교육하기에 편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섬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별히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 말함으로써 인간의 참된 소망과 인간실존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친다. 말하자면 이 고백서는 성경 전체가 수렴하는 요약된 내용이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최소한 이런 지식은 구비해야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을 고백할

10) 마 28:19 πορευθέντες οὖν μαθητεύσατε πάντα τὰ ἔθνη, βαπτίζοντες αὐτοὺς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마 28:20 διδάσκοντες αὐτοὺς τηρεῖν πάντα ὅσα ἐνετειλάμην ὑμῖν· καὶ ἰδοὺ ἐγὼ μεθ' ὑμῶν εἰμι πάσας τὰς ἡμέρας ἕως τῆς συντελείας τοῦ αἰῶνος.

수 있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세례고백서의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교의학자들이 자기들의 교의학을 사도신경의 구조를 이용하여 저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칼빈이 그러하고 독일의 개혁파 교의학자 오토 베버(Otto Weber)가 그러하다. 어쩌면 교의학은 사실상 이런 신경이나 신앙고백서를 해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교의학은 교회에 신앙교육의 범위와 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교회 교육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길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교의학이라는 말이다.

만일 세례고백서나 사도신경이 신자들을 위한 교육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을 해석하는 교의학은 결국 모든 평신도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저술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교육수단을 오랫동안 잊어버린 체, 성경 본문 공부에 치중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소위 교인들에게 기독교 기본진리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거나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살펴보면 드러난다.

종교개혁자들은 “학습문답서” 또는 “신앙교육서”를 만들어 평신도들을 훈련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이런 교육방법을 명쾌하게 기독교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이 “신앙교육서”는 사실상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인 것이다. 이런 성경교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매우 균형 있는 성경지식을 함유하게 만들어 이단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항하게 만들며 영적으로 조화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일어난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목회자들이 이들을 막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 목회자들이 이단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연한 음식인 우유와 같은 달콤한 주일 설교로 만족하고 소위 종교생활을 하다가 이단들의 매혹적인 강력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교의학은 바로 이에 대한 바른 교육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는 그 동안 세례문답 교육을 강조하지 못했다. 매우 짧은 기간에 매우 간단한 문답식 교육 자료로 거의 주입식으로 교육했다. 이것은 3년간 교단의 학습문답서를 가르친 다음 입교 내지 세례를 베푸는 서구 교회와는 매우 대조가 된다.

다행히도 근래에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강화하며 또 성도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성도들은 최소한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은 소원을 지닌다. 이에 대한 좋은 수단이 바로 교의학적인 성경공부 방법인 “신앙교육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가 교의학의 기능을 목회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교회 교육 분야인 것이다.

또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했을 때 조직신학은 매우 좋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목회자들은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정통 복음을 변증했을까?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만 해서 대답했을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조리가 없고 매우 혼란스러운 대답을 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목회를 시작한 제자들이 와서 이단들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조직신학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아가 교의학은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의 심성을 분석하여 그들의 심성으로 신앙고백서를 만들도록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의 자연적인 부패한 의식구조를 파악한 다음, 그것을 고치는데 필요한 정확한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 시대정신(時代精神)을 분석하여 그 시대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개혁신학은 동키오테식으로 이전 어느 한 시대에 만든 신학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16세기에 만들어진 신학으로 21세기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는다. 16세기 신학은 16세기 사람들의 심성과 사고방식과 관련하여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또 16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신학은 범신론적인 동양인들의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를테면, 귀신론이나 샤머니즘적인 심성과 같은 인간문제를 해결할만한 실마리가 없다. 따라서 개혁신학은 한반도에서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신학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적인 신학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빵과 우유, 소세지 등을 먹고 살던 유럽 사람들이 쌀과 김치 그리고 된장과 고추장을 먹으며 콩나물국을 먹는 한국 땅에 떨어지면 한국적인 음식으로 자신의 체질을 재형성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개혁신학은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안목을 가지게 하여 자신이 현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들게 한다. (계속)

2016 신·편입생 모집(특별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 정	인 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Ph. D.)과정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명	1.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 2일(월)~12월 8일(화) 2. 전형일시 12월 10일(목) 오전 10시 3. 전형방법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신학석사(Th.M.) 과정	00명	
목회학석사 (M. Div.)과정 연구(M. Div. eq.)과정	00명	
석사(M.A.)과정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0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반 -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명	

2. 특전: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특별전형에 한함)

3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4.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